

박인호 공참총장, 美 우주사령관과 대담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은 3월19일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제임스 디킨슨 미 우주사령관과 양자 대담을 했다. 두 지휘관의 만남은 지난해 8월 미국 콜로라도에서 열린 우주지휘관회의 이후 7개월 만이다. 이번 방한은 디킨슨 사령관의 요청으로 추진됐다. 디킨슨 사령관은 19~20일 박 총장과 양자 대담을 비롯해 공군본부 우주센터와 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했다. 세계 각국이 우주 영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주력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디킨슨 사령관의 방한은 미국과 우주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

서 의미가 크다고 공군은 설명했다. 두 지휘관은 대담에서 우주 영역 인식능력 발전과 북한의 우주발사체 개발 대응 등 우주정보 공유 수준 격상에 대해 집중 토의했다. 또 최신 미사일방어체계 정보 공유와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는 미사일 탐지·추적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두 지휘관은 공군본부 우주센터를 찾아 우리 공군의 우주감시체계를 소개·보고받았다. 이어 양국 군사우주 교류 활성화를 위한 상호 연락장교 파견, 우주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지원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공군사관학교, 70기 생도 졸업·임관식

공군사관학교(공사)는 3월 2일 학교 성무연병장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제70기 공군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행사는 외부 인원 초청 없이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우등상 시상, 졸업증서 수여, 임관사령장·계급장 수여, 입관 선서, 대통령 축전 대독, 국방부 장관 축사, 사관생도 행진, 축하비행 등으로 진행됐다. 영예의 대통령상은 정대권 소위가 받았다. 국무총리상과 국방부 장관상은 각각 안상규·김민욱 소위가 받았다. 박성근 소위는 합동참모의장상을, 이태오 소위는 한미연합군사령관상을 차지했다. 또 서수연·김현오·박영후 소위는 각각



육·해·공군 참모총장상의 주인공이 됐다. 이날 졸업·임관한 183명(외국군 수탁생도 5명 포함)은 지난 2018년 입학해 강도 높은 군사훈련과 생활·학위 교육을 이수했다. 군사학과와 함께 각각 문학사·이학사·공학사 학위를 받았다.//

2021년 안전우수부대 시상식

공군은 15특수임무비행단(15비)에서 신옥철 참모차장 주관으로 2월 15일 '2021년 안전 우수부대 시상식'을 열어 지난해 안전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우수 부대·장병을 격려·포상했다. 안전 우수부대 시상은 공군 장병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선제적 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비행안전, 지상안전, 안전업무 항목을 심사·평가해 종합 점수가 높은 비행단·비행전대·비행대대 등 각급 부대와 장병 개인을 선정한다. 올해는 15비, 53특수비행전대(53전대), 20전투비행단 121전투비행대대(121대대)가 최우수부대 타이틀을 거머쥐어 공군참모



총장 부대표장을 받았다. 15비 진소라(임)소령·정유진 대위·곽상민 원사, 53전대 박용하·정한울 대위와 하창주 중위, 121대대 원대한 소령·전병준 대위·함재혁 원사 등 9명은 개인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공군 정책발전자문회의

공군은 3월17일 공군본부 우주센터에서 정보작전참모부 주관으로 정보작전 분야 정책발전자문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지난 1월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김병조 국방대 교수, 이병남 국방과학연구소 레이더전자전기술센터장, 전성진 한국국방연구원 인력정책연구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군 우주센터 현황 및 우주력 발전계획' '공군 전자전 발전계획' '공군 조직 현황 및 발전계획' '공군 정보전력 발전계획' 설명을 들으며 공군의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아울러 우주·전자전·정보·조직 등 공군 정보작전 분야 발전을 위한 여러 의견을 개진하고, 공군의 우주력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51기 졸업 및 임관식

대한민국의 하늘을 굳건히 수호할 공군 부사관 143명이 탄생해 힘찬 비상을 시작했다. 공군교육사령부(공군교육사)는 2월 28일 사령부 연병장에서 항공과학고등학교(항과고) 51기 졸업 및 임관식을 사령관 주관으로 거행했다. 행사는 졸업증서 및 상장 수여, 임관장·계급장 수여, 입관 선서, 사령관 훈시 등의 순서로 전개됐다. 성적 우수자 시상에서는 합체은 하사가 국방부 장관상을, 안채은 하사가 합참의장상, 오주영 하사가 공군참모



총장상을, 배주연 하사가 공군전우회장상인 보라메상을 수상했다.//

공군 '최우수 조종사'에 11전비 방주원 소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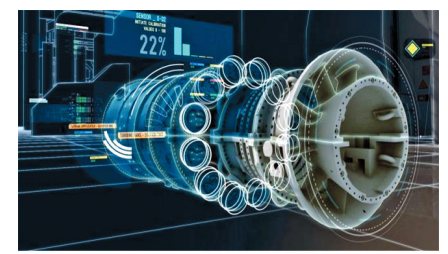
공군11전투비행단 F-15K 조종사 방주원 소령이 2021년 최우수 조종사에 선정돼 대통령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공군은 3월 4일 공군본부에서 박인호 참모총장 주관으로 '2021년 공군 최우수 조종사' 시상식을 개최했다. 공군은 조종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1979년부터 최우수 조종사를 선발하고 있다. 비행단에서 근무하는 모든 조종사를 대상으로 비행 경력, 작전 참가 횟수, 비행 안전 기여도, 전문지식, 체력 등을 종합평가해 1000점 만점의 점수로 환산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방 소령이 849.6점으로 최우수 조종사 타이틀을 획득했다. 분야별 최우수 조종사에는 19전투비행



단 F-16 조종사 김진오 소령(전투임무), 5공중기동비행단 CN-235 조종사 이세리 소령(기동통제), F-15K 조종사 박일수 소령(비행교육)이 각각 선정돼 국방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아울러 기종별 우수 조종사로 뽑힌 23명에게는 공군참모총장 표창이 수여됐다.//

공군 미래기획센터 신설

공군은 1월 1일 공군본부 정책실에 미래기획센터를 신설했다. 이와 연계해 정책실 내 기존 정책기획과·정책조정관리과·대외정책과 등 3개 부서는 정책기획과와 군사협력과 2개로 통합·조정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과학기술 발전추세에 발맞춰 미래기획 추진의 필요성을 반영한 부서 신설·개편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공군은 미래기획센터가 중심이 돼 항공우주력 발전과 스마트 공군혁신의 미래 청사진을 그려 나가는 중이다. 미래기획센터 신설 배경에는 군 안팎으로 미래공군의 혁신적·도약적 발전을 주도할 정책부서가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미·중 전략경쟁, 병력자원 감소, 비전통 위협 증가 등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기민하



게 대응하는 정책·전략을 수립하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증강현실(AI), 로봇, 무인항공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실무 적용하는 공군본부 차원의 전담부서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에 공군은 미래기획센터를 새로 만들어, 효과적인 공군 우주력 발전과 첨단 과학기술 중심의 스마트 공군혁신을 담당토록 했다.//

공군 '미라클작전' 한국영상기자협회 굿뉴스상 수상

우리 정부 활동에 협력한 아프가니스탄 조력자와 가족을 국내로 이송했던 '미라클작전'이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전한 최고의 영상에 뽑혔다.

공군은 2월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5회 한국영상기자상 시상식에서 미라클작전이 한국영상기자협회가 선정한 '2021년 굿뉴스메이커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굿뉴스메이커상은 한 해 동안 시청자와 국민을 기쁘게 했거나 사회를 변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인물·단체에 주는 상이다. 한국영상기자협회 회원들의 투표로 정한다. 공군은 지난해 8월 미라클작전을 완수해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전 세계에 대한민국 위상을 높인 점을 인정받았다. 당시



공군은 주아프가니스탄 한국대사관과 바그람 한국병원 등지에서 수년간 우리 정부 활동을 도운 아프가니스탄 현지인과 가족을 국내로 수송했다.

공군은 시상식에서 받은 상금 100만 원 전액을 순직 조종사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하늘사랑 장학재단에 기부했다.//

공군 장교학군단 3곳 추가창설

공군이 2월 23일부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등 세 곳에 장교학군단을 순차적으로 창설해 정예 장교 양성에 박차를 가한다.

공군은 2월17일 "지난해 하반기 인원 선발을 마친 신규 학군단들은 창설식과 학사일정 시작에 앞서 예비 학군사관후보생들의 기초군사훈련에 전력 중"이라며 "기존 학군단과 더불어 우수 초급장교의 안정적 획득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규 공군 장교학군단 창설식은 2월 23일 서울과학기술대를 시작으로, 25일 경상국립대와 3월 2일 숙명여대가 차례로 개최했다.



이에 따라 공군 장교학군단은 기존 한국교통대·한국항공대·한서대에 이어 3곳이 추가돼 6개로 늘게 됐다.

올 하반기 연세대 학군단이 추가 창설되면 총 7개 대학에서 공군 학군장교를 배출하게 된다.//

조국 하늘 지키는 별 되다...故 심정민 공군소령 영면



"언제까지나 전투 조종사로 살고 싶다"던, 하늘을 사랑하고 조종사임을 자랑스러워한 천생 군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민가를 피하려고 끝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은 '국민의 군대' 표상. 조국 영공수호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고(故) 심정민 소령(추서계급)이 영면에 들어갔다.

공군은 1월 14일 심 소령의 영결식을 10 전투비행단에서 부대장(部隊葬)으로 엄숙히 거행했다. 행사에는 유가족,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군 주요 지휘관, 동기생, 동료 조종사, 10전비 장병들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추모했다. 심 소령은 1월 11일 영공수호 임무에 투

입됐다. 활주로를 박차고 오른 F-5 전투기는 선회 도중 양쪽 엔진에 화재 경고등이 점등됐다.

심 소령은 편조에게 상황을 전파하고, 긴급 착륙을 위해 기지로 방향을 틀었다. 이어 조종계통 결함 발생 사실을 추가 전파하면서 기체가 급격히 하강하자 비상탈출의도를 표명했다. 하지만 항공기 진행 방향에 다수의 민가가 있어 비상탈출을 시도하지 않았고, 회피기동 중 인근 야산에 충돌하면서 순직했다.

살신성인 정신으로 '위국헌신 군인본분'을 발휘한 고 심 소령의 유해는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공군 순직 조종사·비행교수 4명 영결식

3훈련비행단에서 비행훈련 중 순직한 공군 정종혁·차재영(중위) 조종사, 전용안·이장희 비행교수의 영결식이 3월 4일 오전 3훈련비행단(3훈비) 안장남문화회관에서 부대장(部隊葬)으로 거행됐다.

행사는 유가족 요청에 따라 언론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빈소는 지난 1일 3훈비 체육관에 마련됐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등 군 주요 인사들은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



순직 조종사와 비행교수 4명은 3월 1일 오후 1시32분께 사천기지에서 공중비행훈련과 계기비행을 위해 KT-1 훈련기를 타고 각각 이륙한 뒤 5분 뒤인 1시37분께 기지 남쪽 약 6km 지점 상공에서 충돌·추락했다.당시 탑승자들은 비상탈출을 시도했으나, 4명 전원 순직했다.//

19전비, 21만 시간 무사고 비행

공군은 3월 28일 공군본부에서 박인호 참모총장 주관으로 19전투비행단(19전비) 21만 시간 무사고 비행 달성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같은 대기록은 지난 18일 162전투비행대대 허준 소령과 함원석 대위(진)가 탑승한 F-16 전투기가 기지 활주로에 안착하면서 완성됐다. 19전비의 쾌거는 지난 2007년 2월 14일부터 약 15년여에 걸쳐 이뤄졌다.//



20전비 157전투비행대대, 8만시간 무사고 비행

공군20전투비행단 157전투비행대대(157대대)가 1월10일 무사고 비행기록 8만 시간을 달성했다. 지난 2002년부터 약 21년에 걸쳐 이뤄낸 성과다.

대기록은 이날 이지훈 소령과 육건호 대위(진)가 탑승한 KF-16 전투기가 활주로에 착륙하면서 수립됐다.

이 소령과 육 대위(진)가 착륙하자마자 157대대는 기록을 기념하는 비행안전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박기완(준장) 비행단장을 비롯해 157대대원들이 참가해 기록 달성을 축하했다.



1990년 12월 1일 창설된 157대대는 고등비행교육을 이수한 신입조종사들이 K-16 전투조종사가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환 및 작전가능훈련(CRT)'을 운영하는 부대다.//

8전비, 9만 시간 무사고 비행

공군8전투비행단(8전비)이 9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의 금자탑을 세웠다.8전비는 3월23일 "지난 2012년 11월 16일부터 올해 1월 7일까지 9년 3개월여에 걸쳐 9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을 달성했다"고 전했다.

국산 항공기를 운용하는 8전비의 이번 쾌거는 조종사들의 우수한 항공작전 수행 능력, 정비사들의 완벽한 정비지원, 지원장병들의 헌신적 임무 완수가 결합한 결과라고 부대는 설명했다.

8전비는 앞서 지난 2020년 1월에 예하 203전투비행대대가 5만 시간, 같은 해 11



월에는 103전투비행대대가 무사고 비행기록을 수립했다.//

북한의 도발 보고만 있을 것인가?

이한호 (예 대장, 공사 17기, 대한민국성우회장)



북한은 새해 들어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더니 지난 1월19일에는 김정은이 노동당정치국회의에서 “그동안 잠정 중지했던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이 지시는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재개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그 후에도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하더니 30일에는 중거리탄도미사일을 고각 발사하고 “중장거리 탄도탄인 화성-12형의 검수 사격에 성공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화성-12형을 정상 각도로 발사할 경우에는 사거리가 4,500~5,000Km에 달하기 때문에 미군의 광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이 실전 배치되었다는 것을 뜻하며 이제 대륙간탄도탄을 발사할 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만약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탄 발사를 감행한다면 한반도는 다시 엄청난 위기국면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이 유엔안보리결의를 위반하고 판문점 공동선언 정신에도 맞지 않는 무모한 도발을 계속하는 것은 한미 양국을 압박하여 북한에 유리한 입장에서 대화를 재개하고자 하는 의도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군의 3축체계와 지난해 12월에 열렸던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오스틴 미국방장관이 밝혔던 바와 같이 “핵, 재래식 및 미사일방어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용한 확장억제를 대한민국에 제공한다”는 한미 간의 확고한 공약이 유지되고 있는 한 북한은 결코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굴복시킬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강력한 국방력으로 조국통일을 앞당긴다”는 노동당 규약이 허황된 꿈에 지나지 않으며 도발을 자행할수록 주민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결국 체제 유지도 위태롭게 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똑바로 인식하고 모든 도발 행위들을 즉각 중단하고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비추어 볼 때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대북정책이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강력한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평화조약이나 불가침 조약 같은 것들이 진정한 평화를 담보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 강력한 힘으로 적의 도발을 억제하고 유사시 적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있을 때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UN 및 관련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엄중히 규탄하고 더 이상 도발을 자행할 수 없도록 강력한 대북제재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군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더욱 고도화/다양화하게 되면 현 전력은 물론 향후 증강될 전력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핵과 미사일 위협을 전제로 한 연합작전계획을 발전시키고 선제타격 능력과 미사일방어 능력을 획기적으로 증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위협과 도발이 종식될 때까지는 한미연합작전체계가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현 전시작전통제체계를 유지하면서 한미연합훈련을 강화하고, 전작권 전환은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고 남북관계가 안정된 후에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적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군은 물론 모든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호응하고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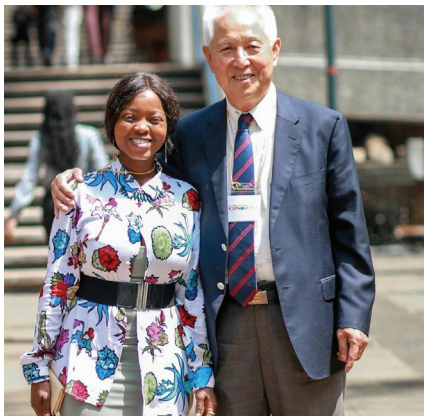
1993년 북한의 NPT 탈퇴 선언으로 야기되었던 1차 북핵 위기 이후 근 30년에 가까운 기간에 걸쳐 수많은 회담, 합의, 결렬 또 다른 회담들이 반복되어 오는 동안 우리의 북한 핵에 대한 위기의식은 실종되었고 그 사이 북한은 한시도 쉬지 않고 핵과 미사일을 발전시켜왔다. 그 결과 김정은은 지금과 같이 힘으로 우리를 압박하려 들고 있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사태가 또다시 유아무야 지나간다면 우리의 젊은 세대와 후손들은 북한의 핵 위협을 짊어지고 살아야 할 것이며 언젠가는 북한의 횡포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는 때가 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도 온 국민이 정부와 군과 함께 단결된 힘으로 북한의 도발에 맞서나가야 할 것이다.//

자랑스러운 제자 필리와 망고

김응수 (예 대령, 공사 17기, 케냐 케냐타대학교 세종학당 학당장)



나는 삶의 후반기를 좀 보람되게 마무리를 하기 위해 65살이 되는 해에 이곳 케냐에 왔는데 벌써 13년이 되었다. 가족과 지인들이 하필이면 왜 죽음의 땅 아프리카 케냐로 가느냐고 만류하여 딱 한 달만 갔다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곳에 왔다.

내가 올 당시는 2007년 말 선거 폭동으로 1300여 명이 살해되고, 35만 채의 집이 불타 없어져서 이재민이 65만 명이나 발생한 직후라서 치안이 극도로 불안한 상태였다. 처음 이곳에 도착하여 이곳저곳을 돌아보고 느낀 것은 내가 어렸을 때 사는 게 무척

이나 힘들어 배고프고 험뻐던 생각이 났다.

그래서 이곳 아이들을 위해 장학사업을 하면서, 영특하지만 가난하여 상급학교에 진학을 못하는 아이들에게 한국으로 유학을 보내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2009년부터 장학사업과 한글학교를 운영하여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게 되었고 개설한 지 2년 후 2011년에 세종학당으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은 한국의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을 시키고, 공부는 좀 못하지만 아주 성실한 아이들은 한국의 직업기술원으로 보내어 직업교육을 받게 하여 케냐에서 좋은 직장을 얻어 대대로 내려오는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였다.

세종학당 설립 운영 이후 지금까지 한국에 가서 직업교육이나 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를 한 아이들은 100명이 넘는다. 이 아이들을 한국에 보내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비자를 받기 위한 재정보증이었다. 대부분 아이들은 가난해서 부모가 재정보증을 설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보증해서 한국의 학교로 진학을 시켰다.

지금까지 많은 학생을 한국에 보내면서 가장 보람되게 생각되는 것은 내 제자가 한국에서 대학교와 대학원을 마치고 나이로 비 세종학당에서 와서 나와 함께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세종학당 재단이 창단 1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전 세계

123개의 세종학당에서 봉사하고 있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주최한 수기 모집에 응모하여 대상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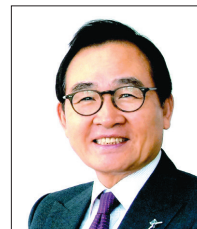
내가 쓴 수기의 요점은 ‘케냐에서 장학생으로 최초로 한국에 보냈던 필리에 관한 내용이다. 마지막 수업료를 못 내서 고교 졸업장과 성적표를 받지 못해 장학생 신청을 할 수 없는 사정을 알고 직접 학교에 찾아가, 당시 400달러 정도를 내가 대신 내주고 성적표와 졸업장을 받아 등록마감 직전에 숙명여대에 등록하여 합격하였다. 그는 공부를 열심히 하여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케냐로 귀국해서 현재 세종학당에서 운영요원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교원양성과정을 수료하여 케냐타 대학교 총장의 추천에 따라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수로 곧 임명될 계획’이라는 내용으로 수기를 썼는데 이것이 “교원 감동수기”로 선정이 되어서 대상을 받게 되었다. 내 나이가 내년이면 팔순이 되니까 필리를 잘 지도해서 세종학당을 물려줄 계획이다.

내가 쓴 수기가 만화 형식으로 재구성하여 오늘 시상식에서 방영을 했는데 오래전 얘기를 다시 보니까 가슴이 찡했다. 옆에 있던 필리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참으로 행복하고 보람된 날이었다.

그동안 성원을 보내주신 공군 선 후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새해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싱글러브장군과 한미동맹

윤은기 (예 중위, 학사 70기, 공군전우회 정책자문위원)



지미 카터가 1977년 제39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자 청와대는 긴장국면으로 바뀌었다. 공화당의 포드후보와 맞붙은 민주당 카터후보는 정치신인이었다. 월남전 패배와 워터게이트사건으로 미국인의 자존심이 실추한 상황에서 도덕, 인권, 주한미군철수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었다. 실제로 그는 안보문제에는 별다른 경험도 지식도 없는 문외한이었다. 그는 김일성정권을 선의로 대하면 군사적 긴장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였다. 조지아사단으로 불리우던 핵심잡 모종에는 북한을 3년간 다녀와서 친북성향의 책을 쓴 사람이 있을 정도였다.

당시 남북한 군사력으로 볼 때 주한미군의 일방적 감축이나 철수는 우리의 국방역량을 크게 약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군사안보적 측면 뿐만 아니라 컨트리리스크 증가로 인해 경제적 충격도 적지않을 심각한 상황이었다. 더구나 북한은 배후에 중국과 소련이 버티고 있었다. 이처럼 주한미군 감축을 우려하고 있던 차에 카터대통령이 취임한 것이다.

한미정상간의 갈등은 그의 방한으로 정점까지 치솟았다. 1979년 6월29일부터 7월 1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동안 전방미군부대를 시찰하고 주한미군철수 의지를 거듭 밝혔다. 뿐만아니라 의회연설에서 한국의 인권문제를 강력하게 비난하여 박정희대통령을 분노케 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카터 대통령에게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며 주한미군 감축을 강력히 반대하였다. 평생 군인으로

살아왔던 그는 해군대위출신 신인 정치인을 스승이 학생에게 대하듯 하였다. 여기에 카터대통령은 분노하여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다. 카터는 설득되기는커녕 더 강경한 자세로 나왔다.

카터 대통령 취임초기부터 주한미군철수 문제가 한미양국의 뜨거운 현안이었다. 이때 주한미군 참모장이었던 싱글러브 소장이 성조지(Stars and Strips)에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하는 인터뷰를 하였고 이게 국내외 언론에 크게 보도되며 큰 파장이 일었다. 카터 대통령은 즉시 싱글러브 소장을 해임하고 그후 예편시켰다. 또한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 사령관인 존 베시 대장을 백악관으로 호출하였다. 카터는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현지 사령관인 베시 대장을 질책하는 동시에 당근을 제시하였다. 주한미군철수를 찬성하면 미 육군참모총장으로 발탁하고 반대하면 예편시키겠다는 것이었다.

창설 당시 한미연합사령부(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CFC)는 사령관 존 베시 주니어 대장, 부사령관 류병현 대장(후에 주미대사 역임), 참모장은 권영각 중장이었다. 나는 초대 정보참모부장(김동호장군 공사2기)의 부관으로 근무하면서 청년장교시절 여러 역사적 격동 상황을 생생하게 목격하였다. 베시 사령관이 백악관에 호출되자 연합사 분위기는 아주 침통하였고 특히 한국군 장성들은 사령관이 어떤 답변을 하고 돌아올지몰라 전전긍긍하였다. 청와대도 초긴장 상황이었다. 존 베시 사령관이 카터 대통령의 설득을 받아들인다면 주한미군철수는 계속될 것이고 한반도는 위기의 안보상황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귀국한 존 베시 대장은 연합사 장군들을 모아놓고 카터대통령에게 한 말을 이렇게 전했다.

“대통령각하 저는 군인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한반도 안정을 해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입니다. 이는 미국과 한국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합니다. 저는 주한미군 철수를 지지할 수 없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한편으로는 안도하였고 한편으로는 침통해하였다. 당장 주한미군철수는 일정기간 피할 수 있지만 친한파인 존 베시 사령관의 예편이 기정사실화되었기 때문이다. 얼마후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존 베시 대장이 미 육군참모차장으로 발령이 난 것이다. 참모총장은 마이어 대장이 임명되었는데 그는 존 베시 대장보다 훨씬 나이가 어리고 과거 존 베시 대장의 직속부하로 근무한 적이 있는 인물이다. 서열을 중시하는 군에서 이런 인사는 군복을 벗으라는 거나 마찬가지다. 화가 머리끝까지난 카터 대통령의 보복성 인사였다. 우리는 또한번 놀랐다. 군복을 벗을 줄 알았던 베시 대장은 국가에 충성할 기회를 준 대통령에게 감사한다는 이임사를 하고 연합사를 떠나 미 육군참모차장직을 받아 들인 것이다.

그후 들리는 소식은 한참 후배였던 마이어 총장을 잘 보좌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런 과동을 거치는 사이 카터 대통령은 여러 참모들의 조언과 의회의 권고를 수렴하여 주한미군 철수계획을 중단하였다. 한반도 상공을 뒤흔었던 먹구름이 해소되기까지 싱글러브 소장과 존 베시 대장의 군인정신과 헌신이 있었다.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하고 또한번의 반전이 있었다. 최고위급 군인사를 하면서 존 베시 육군참모차장을 합참의장으로 전격 발탁하였다. 육군참모총장을 거치지않고 참모차장이 합참의장이 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레이건 대통령은 베시 장군을 ‘군인중의 군인’이라고 격찬하였다. 그의 군인정신과 헌신적 자세를 높이 산 것이다. 베시 장군은 합참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친한파로서 한미동맹 강화에 큰 기여를 하였다.

싱글러브 장군이 서거했다는 소식이다. 올해 100세다. 그는 참다운 군인이었다. 정치권력에 휘둘리지않고 군인정신과 자세를 지키며 자기희생을 감수하였다. 당시 주한미군 참모장 직책은 중요한 자리였고 싱글러브 소장은 중장, 대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소신을 지키다 군복을 벗고 말았다. 그후 인터뷰에서 더 승진하지 못한데 대한 아쉬움이 없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런 말을 하였다. “내 별 몇개와 수백만명의 목숨을 바꾼 것은 보람있는 일이다”

존베시 대장 그리고 싱글러브 장군은 군인의 길을 걸었고 그 덕분에 우리는 더 튼튼한 안보태세를 갖출 수 있었다. 물론 그들은 자기들의 조국을 위해 일했고 소신을 지켰다. 그러나 그들의 군인정신과 소신 덕분에 우리도 더 강한 안보태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한미동맹은 그때나 지금이나 대한민국 국방안보의 초석이며 핵심동력이다. 한미동맹을 위해 노력한 수많은 한미장병들의 헌신을 잊어서는 안된다. 싱글러브 장군의 명복을 기원한다//

기 F-4 팬텀 도입을 성사시켰고, 방위성금으로 부족한 대수를 메웠다. 이른바 ‘방위성금헌납기’들은 대한민국 공군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이 마음을 한데 모아 나라를 지켰던 역사로 기억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중 유일하게 고 심정민 소령의 빈소를 몸소 찾은 바 있다. 당선인은 “심 소령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 그의 순직이 전투기 노후화 때문이라면 부끄러운 일이다.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노후화된 전투기 교체 등 국방 전력을 최신화하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했다. 국군통수권자로서 국방력을 일신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다. ‘늦더라도 안하는 것보다 낫다(Better late than never).’ 국가적 리더십의 용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체온과 건강 그리고 면역력

전대길 (병 176기, (주)동양EMS 대표이사, 수필가, 국제PEN한국본부 이사)



“우리는 가장 덜 아플 때가 가장 완벽하게 건강한 때임을 잘 모른다”고 프랑스 사상가, ‘미셀 몽테뉴(Michel Montaigne, 1533-1592)’가 말했다.

‘건강(健康)’은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말한다. ‘튼튼한 건(健)’은 ‘육체적 건강’을 ‘편안할 강(康)’자는 ‘정신적 건강’을 뜻하기 때문이다.

2020년을 맞아 세상에 창궐(猖獗)하는 코로나19는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현대의학이 고도로 발전했지만 전염병에 대하여 인공적인 면역을 위해 생체(生體)에 투여하는 항원(抗原), 백신(Vaccine)을 개발하지 못하고 돌파구(突破口)를 쉽게 찾지 못하고 있다.

사람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인체에 나타나는 9가지 현상이다.

1. 외부자극에 쉽게 염증이 발생한다.
2. ‘헤르페스’라는 바이러스에 의해 입술 주위에 물집이 생긴다.
3. 업무량이 많지 않아도 피로도가 높고 몸이 무거움을 느낀다.
4. 류마티스 관절염 발병 확률이 높아진다.
5. 헛바늘이 돋는다.
6. 감기에 쉽게 걸리고 잘 낫지 않으며 비염이 생길 수 있다.
7. 장(腸)트러블, 배탈이나 설사 증세가 자주 발생하며 오래 간다.
8. 면역력 이상이나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탈모증이 생길 수 있다.
9. 대상포진이나 알레르기, 피부 트러블(Trouble)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는 7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생활)과 적당한 휴식이 필요하다. 신체 활동이 저하되면 근육량이 줄어들며 자연적으로 근력이 떨어진다. 이는 비만으로 연결되어 면역세포 생성과 활동이 저하한다. 따라서 하루에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한다.

둘째,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

셋째, 체온이 1도가 높아질 때마다 면역력이 50% 이상 높아진다. 평소와 따뜻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반신욕을 자주 한다.

넷째, 찬 음식은 면역력 저하의 주요 원인이다. 음식에 있는 차가운 기운이 위나 장의 기능을 저하시킨다.

다섯째, 금연(禁煙)과 금주(禁酒)는 면역력을 높인다. 하루 평균 4~5잔 술을 마신 사람은 각종 암(癌) 세포와 싸우는 백혈구 수치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현저히 낮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여섯째, 비타민D가 풍부한 햇볕을 쬐야 한다. 인간에게 꼭 필요한 성분인 비타민D

는 음식으로 섭취하기 힘든 영양소이다. 하루 평균 30분 정도 햇볕을 쬐면 1일 필요량의 비타민D를 보충할 수 있다.

일곱째, 비타민C가 많은 과일 오렌지, 레몬, 귤, 고구마, 브로콜리 등을 챙겨먹는 게 좋다. 또 평소에도 다량의 카페인 들어있는 커피(Coffee)보다는 따뜻한 물이나 차(茶)를 마시는 게 몸에 좋다.

사람의 체온은 보통 36.5℃를 유지한다. 그러나 다른 동물의 체온은 각기 다르다. 예를 들면 말(馬)은 37.7℃, 소와 개는 38.5℃, 닭은 41.5℃, 양(羊)은 29.0℃, 고양이는 38.1℃이다.

사람의 체온(體溫)이 1℃ 내려갈 경우에 면역력은 30%가 떨어진다. 목은 것이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생겨난다는 신진대사력(新陳代謝力)은 12%가 떨어진다.

반면에 체온이 1℃ 상승하면 면역력은 50%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따라서 질병에 대항하는 인체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는 온열요법(溫熱療法)이다.

겨울철에는 실내 온도가 너무 낮아도 나쁘지만 18~21℃가 실내 최적 온도이다. 날씨가 춥다고 온도를 지나치게 올리는 것은 좋지 않다. 실내 온도가 25℃ 이상이면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 실내 온도가 약간 춥다고 느낄 정도인 18~21℃가 최적 온도이다.

또한 하루에 3번 정도 창문을 열어 실내 공기를 밖으로 배출하는 환기를 해야 한다. 매번 10분 이상 창문을 열어두는 게 바람직하다. 겨울철 실내 온도(15~20℃)만큼 중요한 게 실내 습도(濕度)다. 보통 50~70% 습도가 바람직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몸속에 수분이 충분해야만 인체의 면역력이 높아져서 감기(感氣)를 예방할 수 있다.

참고로 음식 맛을 좌우하는 기본 요소 중 하나가 음식의 온도이다. 포도주가 가장 맛있는 온도는 15℃이며 커피나 홍차는 65℃이다.

맥주(麥酒)는 4℃일 때가 가장 맛이 있다. 청주(淸酒)는 50℃, 된장국은 60℃, 송농은 70℃, 어린 아기용 우유는 37℃이다. 냉수는 13℃가 가장 맛이 있으며 우물물도 13℃이다. 아이스크림은 -12℃일 때가 가장 맛이 있다.

건강 이야기에 ‘기운 기(氣)’란 글자가 빠질 수 없다. 기(氣)는 예로부터 인체 내에는 물론이고 우주 만물에 편재되어 있는 일종의 에너지이다.

우리 민족은 일상생활에서 그 실체를 파악하여 사용해 왔다. ‘기(氣)’란 글자에 쌀(米)자가 들어 있듯이 사람은 밥(米)을 먹어야만 기운(氣運)이 난다.

예로부터 ‘밥이 보약(補藥)이다’란 말이 수긍(首肯)이 간다. 사람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은 ‘생기(生氣)’가 있는 것이며 젊음이 좋은 것은 ‘혈기(血氣)’가 넘치기 때

‘노후 F-5 전투기 대체’ 지도자가 결단을

이원익 (다쏘시스템코리아 공공부문 대표, 공사 19기, 예 대령 이승호 아들)



안전사고 위험... 지금까지 52명 순직 국방 최신화는 ‘국민생명 지키는 일’

지난 1월 발생한 F-5 전투기 추락 사고의 원인이 최근 발표됐다. 엔진 연료 도관에 발생한 구멍을 통한 연료 누출과 이로 인한 화재가 원인이라고 한다. 고(故) 심정민 소령은 민가를 피하려다 기체와 함께 산화했다. 공군에 따르면 600시간마다 점검하게 돼 있는 문제의 부품은 교체한 지 508시간 정도만 지났기에 과학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라고 한다. 노후화에 의한 결함 가능성이 큰 것이다.

통상 전투기 경제수명이 30여 년임을 고려할 때, 평균 기령이 40년 안팎인 F-5는 항상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왔고 2000년 이후 12대가 추락, 13명의 조종사가 순직했다. 이번처럼 엔진 결함에 의한 추락은 초유의 일이다. 노후화가 극한에 다다른 징후일 것이다. 언제 또 ‘예견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른다.

필자의 아버지는 F-5 조종사였다. F-5 소리 속에서 태어나 자랐다. 필자가 태어난 1976년 즈음부터 F-5가 대량 도입됐다. 거의 반세기 동안 한국은 6대 군사 강국이 됐고, 10대 경제 강국이 됐는데 F-5는 아직도 날고 있다. 공군 관사 어린이로서 많은 F-5 비행사고를 접했다. 옆집 아저씨, 친구 아버지들이 하늘로 떠났다. 대한민국 공군 F-5라는 책을 쓰며 순직 조종사들의 명단을

정리했다. 최초 도입 F-5A까지 포함하면 무려 52명이 순직했다. 매년 10여 명에 달한다. 집필을 위해 F-5에 탑승한 적이 있다. 공중에서 경고등이 점멸할 땐 조종사들의 호흡은 가빠졌다. 40대 전투기에 20대 조종사들이 목숨을 걸고 나는 모습에 납세자로서, 국민으로서 민망하고 미안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배경은 고질적 예산 부족과 거듭된 신예기 도입 지연으로 노후 기종 교체가 늦어진 데 있다. 공군은 원래 180여 대의 F-5 전력 중 노후화가 심한 60여 대는 국산 경공격기 F/A-50으로, 나머지는 개발 중인 국산 전투기 KF-21로 대체하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KF-21 사업 추진 결정이 10년 이상 지연되면서 대체 도태 후 남은 80여 대의 F-5 퇴역은 뒤로 밀렸다. KF-21이 배치될 2032년까지 10년은 더 날아야 하는 것이다.

F-5는 하루빨리 도태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비단 조종사뿐만 아니라 F-5가 날아다니는 하늘 아래 시민들의 생명도 걸려 있다. 언제 도심에 추락할지 모른다. 공군은 신예기 도입 등 F-5 대체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확보가 난관일 것이다. 비용과 시간 절약을 위해 리스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선례가 있다. 공군은 노후 훈련기 도태와 대체 국산 훈련기 T-50 개발 기간의 공백을 메우고자 미 공군의 T-38 훈련기를 리스해 무사고 운용했다. 아니면 방위성금 모금이라도 하자. 박정희 전 대통령은 외교적 수완을 발휘해 당시 최강 전투